

# “자연과 어우러진 양림동에서 기후위기 말하고 싶었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레지던시 보고전 여는 이탈리아 유디스 작가

남북극 기후위기 영상·양림동 버려진 나무 활용 작품

‘순응’ 주제 20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불교가 자연 대하는 태도 인상적...작업으로 녹여낼 것”

근대문화유산의 보고 양림동에 자리한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첫 해에는 독일 베를린의 피터 에발트, 이탈리아의 리카르도가 다녀가는 등 개별 작가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이후 각국의 레지던시와 협업도 이뤄지면서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이 찾아왔다.

2019년부터는 우리 지역 작가들의 해외 파견도 시작했다. 독일 뮌헨-이탈리아 토네가 프로젝트가 인연이 됐다. 광주에서는 윤세영·조은솔·설박 작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내년에는 뮌헨-토네가 프로젝트와 함께 프랑스 마르세유 잔바레, 인도 무니힐 레지던시에도 지역 작가를 파견할 예정이다.

올해 호랑가시나무 국제 레지던시에는 스페인의 아나 히네즈, 이탈리아의 유디스 노인호이저리, 프랑스 엘비에 등 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이 중 유디스 작가가 결과 보고전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오는 20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전시를 여는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0월 1일 광주를 찾은 유디스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레지던시 참여는 뮌헨-토네가 프로젝트가 인연이 됐다.

“광주가 미디어 아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시라고 들었는데 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 작가로서 도움이 됐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양림동 일대는 숲속영화제도 열리고 문화적으로 누릴 게 많아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을날 자연과 어우러진 이곳에 머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순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유디스 작가는 북극 레지던시, 남극 탐험대에 합류해 작업했던 내용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또 짧은 시간이지만 양림동에 머물면서 구상한 작품도 내놓았다. 양림동의 버려진 나무 등으로 리사이클링을 작업을 진행했고 사진을 찍었다.

북극 빙하 위 보트 위에서 동료작가와 식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촬영한 영상 작품은 특히 인상적이다. 작가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상작품은 자신의 10대 시절 영상 일기와 5년 전 남극탐험대에 참여했을 당시의 활동 일기를 겹쳐서 보여준다. 전문가 남성 탐험대원이 아닌, 일반인 여성 탐험대의 시선 자체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하는 그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자신의 팔과 양림동에서 구한 식물이 즐근 유지하는 ‘평행선’과 자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

“스티븐 호킹의 책을 좋아하는 등 과학에 관심이

많아요. 우연한 기회로 남극과 북극에 다녀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기후변화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됐죠. 이탈리아의 만년설이 녹는다는지, 예전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워진 밀라노의 날씨라든지 개인적인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기에 자연과 생태계, 기후 위기를 주제로 작업하게 됐습니다.”

유디스 작가는 다양한 레지던시에 참여하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머무는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문화와 나라에서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게 레지던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조각을 전공하고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저는 무언가를 수집하고 모으는 게 중요한 일인데, 다양한 곳에 머물며 작품 소스를 얻는 게 좋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미황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교가 자연에 대한 태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유디스 작가는 특이하게 ‘가오리’를 자신의 로고로 삼아왔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활동을 할 때 가오리 타투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확장해 나가곤 했는데, 이번 광주 레지던시에서는 시장에서 발견한 ‘가오리’를 구입해 함께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며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양림동 거리를 걸으면서 번역기를 활용해 간판이나 안내문 등을 읽고는 했는데 번역기가 ‘시(詩)’는 제대로 번역하지 않거나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게됐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와 불교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을 기후위기와 연계해 작품 소재로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20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레지던시 보고전시회를 갖는 유디스 노인호이저리.

## 용왕을 만나러 가는 길... ‘블록 토끼 간’ 가져갈까



ACC 어린이문화원 블록아트전

25일부터 ‘별주부전’ 각색

350여명에 10만개 블록 작품

조선시대 구전설화이자 판소리계 소설인 ‘별주부전’을 각색해 스토리와 체험, 놀이를 접목한 블록아트 체험 특별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일명 ‘용왕을 만나러 가는 길’.

이번 체험 특별전은 ACC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별주부전’ 스토리를 토대로 구성됐다.

죽을병에 걸린 용왕이 토끼의 간을 얻기 위해 자라를 시켜 토끼를 바다로 불러들인다. 용궁에 도착한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작품을 제작한 김계현 작가는 10만여 개 이상의 블록을 사용해 350여 평의 전시장을 대규모 블록아트 작품들로 꾸몄다. 육각형 모양의 ‘케플(KEPL)블록’은 작가가 직접 개발한 완구 형태의 블록이다. 좌우상하 방향으로 슬라이딩하는 방식과 축적하는 방식으로 조합해 다양한 모양을 구성할 수 있다.

전시는 원작의 주요 인물과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블록아트 작품으로 제작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등장 인물을 따라 육지와 바다를 오가는 각 장면마다 어린이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아시아 스토리 기반 전시 콘텐츠 개발의 하나로 기획됐으며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관람료는 어린이 1만5000원, 어른 5000원이다. 관람권은 오는 21일부터 네이버, 위메프, 쿠팡에서 구매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백성을 시킨 성곽

전남대 박물관 기획전

성곽은 외부로는 나라의 안위를 담보하고 내부로는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우리민족을 견고히 지켜온 살아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하다.

삼국시대 순천 집단성성을 비롯해 여수 고락산성, 통일신라시대 광주 무진고성 등 광주·전남 성곽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남대 박물관은 내년 12월 3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광주·전남의 성곽’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전남대 박물관과 목포대 박물관, 순천대박물관이 직접 발굴, 조사했던 성곽 자료를 한데 모아 여는 순회 전시로 마련됐다.

전남대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성곽이 독자성과 주체성을 보호하는 견고한 토대의 기능 외에도 우직한 우리 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5·18사적지의 ‘SOS 풍경 V’

5·18기념재단·목요사진 내달 11일까지 사진전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과 목요사진은 오는 12월 11일까지 ‘SOS 풍경 V 사진전’을 5·18기념문화센터전시실에서 개최한다.

‘SOS 풍경 V’ 사진전에서는 목요사진 소속 5인의 작가(전석기, 김형주, 엄수경, 임성규, 주운민)가 5·18사적지를 각자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사진 50여점을 전시한다.

목요사진은 지난 2015년부터 505보안부대 터, 옛 국군광주병원, 옛 광주교도소 등을 사진 기록

으로 남기며 5·18 당시 피해자들 증언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집단기억을 소환하는 일을 진행해 왔다. 5·18사적지가 갖는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그 가치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업이다.

이번 전시는 1980년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부상자를 치료했던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기록했다.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 사실적인 기록보다는 그곳에서 보내오는 SOS를 각자가 은유적이고 상

징적 이미지로 기록한 게 특징이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부상자를 간호하거나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돕고 병원 앞에 한렬 행렬이 길게 형성되는 등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의 공동체정신이 빛났던 곳이다. 서남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던 적십자병원은 운영난으로 인해 2014년 폐쇄됐고 2020년 7월 광주시가 매입했다. 현재 5·18 기념재단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과 오월길 및 옛 광주적십자병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엄수경 작 ‘적십자병원’

있으며 12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